

# 반복되는 돌발 폭력...현행법 허용 훈육 '한계'

## 추락하는 교권 이대로 괜찮나

〈중〉 원인

아동학대 신고 우려 소극적 대응  
담임 기피 기간제 교사에 몰아줘  
학교 현장 전수조사 필요 목소리

교권 침해는 현장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등 학생 지도·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를 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높아졌다. 지난해 광주교육 종합 실태조사 결과 학생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2020년 11.5%에서 15.9%로 상승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민원(2020년 11.2%→2022년 12.9%), 교권침해(2020년 10.7%→2022년 12.0%), 관리자와 관계(2020년 5.6%→2022년 6.3%)에 따른 스트레스도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해하고 감싸주며 사랑으로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돌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반복돼 교육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의 수많은 협조 요청에도 반응하지 않고 교사의 책임만 이야기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학교 모습은 부모 세대가 아닌 학교와는 정말 다르다"며 "이제 교육 현장은 새로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규율을 지키지 않는 학생'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현행법이 허용하는 훈육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와 성장 없이 이런 행동들이 더욱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권 침해 영향으로 일부 교사들은 담임을 기피하고 일부는 교단을 떠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67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55명, 2020년 139명, 2021년 133명, 2022년 151명, 2023년 2월 92명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2020년과 2021년 소폭 감소하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에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권 침해 등이다. 여기에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퇴직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연금 수령도 늦춰져 오히려 명예퇴직하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담임은 수업을 비롯해 급식지도, 조·종례, 생활지도, 학생·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 학교생활기

록부 기록, 생활지도 등 계속해서 업무는 늘고 있다. 업무 부담이 큰 데 비해 담임 수당은 적고, 교권이 추락해 생활지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사나 신규교사까지 담임 맡기를 모두 꺼리면서 기간제 담임교사가 많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기간제 담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8%(24명), 초등학교 1.03%(41명), 중학교 28.29%(510명), 고등학교 34.96%(610명), 특수학교 40.38%(86명)이다.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가 몰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권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교권 침해 사례를 축적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신고된 교권피해 신고통계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교권 침해는 막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환경 생각하는 그린 봄장날 22일 오전 광주YWCA 회관에서 열린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Green) 봄장날'을 찾은 시민들이 의류, 각종 생활용품, 향토식품 등을 고르고 있다. /김태규 기자

## 남구, 통일열차 전좌석 매진

광주 남구는 내달 13일 남구 효천역에서 출발하는 통일열차의 전좌석이 매진됐다고 22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내달 13일 효천역발 첫 통일열

차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한 탑승객 180명을 태우고 최북단 도라산역으로 향한다.

탑승객 180명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현장 접수 및 지난 20일 실시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정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접수는 모집 정원인 80명을 초

과해 총 111명이 몰렸다.

남구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탑승객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을 공개했으며, 모집 인원 80명을 선정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온라인 접수는 당일 하루 만에 마감됐다. /민찬기 기자

## 광주 학생들 "인종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 유네스코 국제무대 발표

광주시교육청은 민주·인권 국제교류단 학생들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 국제 무대에서 발표를 진행,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유네스코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 행사에는 전세계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인종차별과 차별에 반대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광주 대표로는 지난해 시교육청과 유네스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공동 주최한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광주 시리즈'에서 우승한 '온새미로' 팀이 참가했다.

'온새미로' 팀은 그동안의 활동 내용, 차별에 관한 생각과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영어로 발표했다. 특히 "세상의 많은 차별 문제들이 문제와 행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방향

을 가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마스터 클래스의 활동이 차별에 대한 다른 눈금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모두가 연대에 대한 관심과 변화를 보여줘야 우리가 꿈꾸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세계 각국의 학생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유네스코 및 파리 Jeannine Manuel School은 상호 협력과 교류를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발표에 참여한 대상여고 2학년 윤혜정 학생은 "청소년 대표로 올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그동안의 활동들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 목표를 가지고 더 깊이 탐구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황애란 기자

## 조선대 교수평의회 임원, 계약직에 직장 내 괴롭힘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임원이 단기계약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 전화·메시지와 개인운전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22일 조선대에 따르면 인권·성평등센터 최근 심의를 거쳐 교수평의회 임원인 A씨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B씨에 대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B씨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외 시

간에 전화와 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하고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요구했다. 또 노사 합의 사항으로 모든 직원이 '동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A씨는 '교수평의회는 단축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를 주저하자 지속해 공문 기안을 강요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최종 확정되면 징계 심의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 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

기초반, 중급반

## ★ 경매 물건추천 ★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p>①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p> <p>② 중급반 (실전부터 ~)</p> <p>③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p> <p>④ 투자반 (투자가능한분)</p> <p>⑤ 전문반 모집 (직업, 수익가능)</p> <p>• 전문반무료제공 - 책상, 컴퓨터 제공, 매주1회물건스터디</p>	3/23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8억9천	6억2천	4/17	김제시 하동	아파트	130억	32억
	4/26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50억	28억	4/10	보성군 벌교읍	펜션	130억	5억7천
	4/27	광산구 신가동	상가빌딩	13억8천	9억7천	3/27	목포시 무안동	상가빌딩	3억2천	1억8천
	4/4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3억7천	3억7천	3/27	김제시 서암동	무인텔	23억	8억2천
	4/25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4억	2억8천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25	서구 화정동	근린상가	1억1천	5천1백	4/10	목포시 용당동	상가빌딩	9억	6억3천
	4/28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3억1천	1억7천	4/27	나주시 산포면	상가주택	33억	15억
	4/27	서구 농성동	잡종지	1억5천	1억	5/1	목포시 옥암동	상가주택	11억	7억7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12	서구 풍암동	임야	25억	5억7천	4/24	목포시 향동	상가주택	6억8천	4억8천
	4/25	광산구 수완동	농지	11억	7억8천	4/13	나주시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54억	24억
	4/28	광산구 덕림동	임야	21억	12억	3/27	전주시 완산구	상가주택	6억8천	1억5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4	장성군 장성읍	농지	1억7천	1억2천
	4/28	광산구 수완동	아파트	7억5천	5억2천	4/27	장성군 북이면	주택	2억9천	2억
	4/13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2억8천	1억6천	4/4	영광군 묘량면	공장	8억2천	2억3천

# 010-6670-9800    062-382-5500